

# 세계도시동향

헤드라인뉴스	1	런던, 세계 최초 국립공원 도시로 만든다	런던
문화·관광	3	덜 알려진 ‘작은 도시·마을’을 관광지로 개발	토스카나
사회·복지	5	장애인에 특화된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제공	빅토리아
환경·안전	7	파리명물 ‘모리스기둥’에 대기정화 신기술 탑재	파리
	9	“부처 간 의견 충돌로 태풍 하비 대피령 발령 늦어져”	휴스턴
도시계획·주택	10	사회주택 입주자 의견 적극 수렴해 정책 수립	런던
뉴스인사이드	13	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	뉴욕 외

## 런던, 세계 최초 국립공원 도시로 만든다

환경전략...2050년까지 도시면적 50%, 자연친화공간으로 조성

영국 런던市 / 환경·안전

- 영국 런던市는 대기오염·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런던을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 도시(National Park City)로 만들기로 하고, 구체적 환경전략(Environment Strategy)을 수립해 2050년까지 도시면적의 50%를 자연친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결정
  
- 배경 및 개요
  - 대기오염, 소음공해, 환경파괴, 기후변화 등 각종 환경 문제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침
  - 이에 따라, 시정부는 2050년까지 도시면적의 50%를 자연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런던을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도시로 만들 계획을 수립
    - 도시계획, 개발, 주거 환경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수단을 활용할 예정
      - 개발 규제로 그린벨트 보호
      - 옥상정원(green roofs), 생울타리(green walls), 빗물정원(rain gardens) 등 자연친화적 시설 조성
      - 개발지역 내 야생동물 서식지(habitats for wildlife) 형성
  
- 런던 환경전략(London Environment Strategy)
  - 런던을 국립공원 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으로 8월 11일 발표
  - 런던이 직면한 환경적 현안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환경보호 계획을 수립
    - 런던을 더욱 자연친화적(Greener)이고, 깨끗하고(Cleaner), 미래에 대비하는(Ready for the future) 도시로 만들기 위함
  - 환경전략의 5가지 주요 영역
    - 대기 질(Air quality), 자연친화적 기반시설(Greener Infrastructure),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(Climate Change Mitigate and Energy), 쓰레기(Waste), 환경 소음(Ambient Noise)

- 자연친화 도시 기금(Greener City Fund)
  - 국립공원 도시 조성을 위한 자금 계획
  - 9백만 파운드(134억 4천만 원)의 기금을 조성해 공원 등 자연친화공간 조성  
과 나무심기 등에 활용
    - 첫 단계로 1백만 파운드(14억 9천만 원) 규모의 보조금을 조성
      - 공모를 거쳐 지자체, 지역 커뮤니티, 환경 단체가 공원 조성  
과 나무심기 등에 사용하도록 지원
    - 이후 3년간 3백만 파운드(44억 8천만 원)를 지원할 예정

<https://www.london.gov.uk/WHAT-WE-DO/environment/environment-publications/draft-london-environment-strategy-have-your-say>

<https://www.london.gov.uk//city-hall-blog/mayor-plans-make-london-worlds-first-national-park-city>

<https://www.london.gov.uk/what-we-do/environment/parks-green-spaces-and-biodiversity/greener-city-fund#acc-i-48845>

정기성 통신원, jkseong71147@gmail.com

## 문화·관광

### 덜 알려진 '작은 도시·마을'을 관광지로 개발

이탈리아 토스카나주 / 문화·관광

- 이탈리아 토스카나주는 덜 알려진 작은 도시와 마을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관광 프로젝트 '또 다른 여름'(Un'altra Estate)을 여름 성수기를 겨냥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
- 배경
  - 주정부는 내부 지역 간의 관광객 수와 관광 인프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
    - 이탈리아어로 '보르기'(i borghi)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간직하면서도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
  - '보르기'를 중심으로 관광 성수기인 7월 말~8월 말을 겨냥해 '또 다른 여름'이라는 관광 프로젝트를 기획
    - 지역 문화와 주민의 일상생활을 체험해보고 싶어 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는 테마관광의 가능성을 중시
    - 토스카나 관광의 약 10%를 차지하는 마을과 소도시의 점유율이 1년 뒤 14%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
- 개요
  - 토스카나주정부, 토스카나 관광공사, 유럽 역사문화관광연합이 주최하는 토스카나 최대의 여름 관광 프로젝트
    - 이탈리아 유명 일간지 '일 티레노'(Il Tirreno)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사 공유와 전문적인 홍보가 가능
  - 해마다 특정한 주제를 정해 관련된 마을이나 도시를 선정
    - 올해는 '바다·해안'을 주제로 삼고, 관광객에게 알려지지 않은 해안마을이나 도시를 5개 선정
      - 내년부터는 더 많은 마을과 도시를 선정할 계획
    - 선정된 마을과 도시마다 7월 27일~8월 31일 중 하루씩 이벤트를 진행

- 이벤트 주요 내용
  - 전문가와 함께 하는 와인 시음회와 전통 음식 시식
    - 각 마을의 중심 광장에서 미식 전문가와 저널리스트의 진행으로 관광객에게 현지 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
  - 365일 관광정보 제공 부스 설치
    - 마을의 특색을 살려 디자인된 부스를 설치해 관광정보와 팁을 365일 제공
  - 사진 콘테스트
    - 일간지 '일 떠레노'의 주최로 프로젝트에 선정된 작은 도시와 마을의 특색을 잘 표현한 사진을 선정하고 전시회 개최
  
- 도시·마을별 이벤트 일정
  - 7/27: 엘바섬의 카포리베리(Capoliveri, Isola d'Elba)마을
    - 토스카나의 보석으로 불리며 지역주민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, 관광 정보와 교통수단이 부족한 엘바섬의 작은 마을
  - 8/3: 비코피사노(Vicopisano)시
    - 피렌체와 피사를 지나는 아르노강의 골짜기에 있어 토스카나 고유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도시
  - 8/10: 까라라(Carrara)시
    - 해안에 있지만 대리석 생산지라는 특성 때문에 관광지로 주목받지 못했던 도시로, 조각예술의 도시이자 해안도시의 가치를 살리고자 선정
  - 8/24: 로지냐노 마르티모(Rosignano Marittimo)마을
    - 관광지로 개발되지는 않았지만, 오염되지 않은 백사장과 해변을 보유
  - 8/31: 카스틸리오네 델라 페스카이아(Castiglione della Pescaia)마을
    - 이탈리아 관광객에게 유명한 해안마을로 대규모 단체 관광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해안마을 고유의 문화를 체험 가능

<http://www.toscana-notizie.it/-/un-altra-estate-dal-27-luglio-al-31-agosto-in-cinque-borghi-toscani>  
<http://www.regione.toscana.it/-/al-via-la-seconda-edizione-di-un-altra-estate->  
<http://www.toscanapromozione.it/content/28/Un-altra-Estate>  
[http://iltirreno.gelocal.it/regione/toscana/2017/07/20/news/un-altra-estate-in-viaggio-nei-borghi-toscani-1.15636448?refresh\\_ce](http://iltirreno.gelocal.it/regione/toscana/2017/07/20/news/un-altra-estate-in-viaggio-nei-borghi-toscani-1.15636448?refresh_ce)  
<http://www.intoscana.it/it/articolo/Unaltra-estate-in-Toscana-turismo-food-e-bellezza-tocca-a-Vicopisano/>

김예름 통신원, yereumkim@gmail.com

## 사회·복지

### 장애인에 특화된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제공

호주 빅토리아주 / 사회·복지

- 2009년부터 장애인 통합정책을 추진 중인 호주 빅토리아주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막는 장벽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더 많은 장애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장애인에 특화된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
- 배경
  - 주정부는 2009년부터 꾸준히 장애인 통합정책을 추진 중
    - 4년마다 장애인 통합정책의 내용을 최신화
    - 2017년부터 세 번째 장애인 통합정책인 ‘한 사람도 빠짐없이’(Absolutely Everyone: State Disability Plan 2017~2020)를 시행
  - ‘한 사람도 빠짐없이’는 다음 4가지 영역에서 실행계획과 기대성과를 제시
    - 통합적인 지역사회, 보건·주택·웰빙, 공정함과 안전, 지역사회에 기여
  -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지역의 공적·사적 영역에서 불이익을 경험
    - 2014년 주의회 보고서는 스포츠, 여가, 단체활동, 일상적 상호작용 등 전반적인 장애인 지역사회활동 참여에 장벽이 있음을 지적
      - 지역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장애인은 1/3 이하이고, 참여 욕구가 적절히 해소되고 있는 장애인은 10명 중 1명 미만
      - 전체 주민의 지역사회 스포츠 활동 참여 비율은 80% 수준이지만, 장애인의 참여 비율은 60%대
- 주요 내용
  - ‘한 사람도 빠짐없이’의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막는 장벽에 근본적 대처가 요구
    - 주정부는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효과적인 방안으로 지목

- ‘장애인 리더십 프로그램’(Disability Leadership Program)을 도입
  - ‘장애인 리더십 프로그램’을 ‘한 사람도 빠짐없이’ 정책의 전제조건으로 제시
  - 장애인의 권한과 능력을 신장시켜 지역사회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하고,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
- ‘장애인 리더십 프로그램’은 다음 총 8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
  - 리더십 포럼과 네트워킹: 지역사회 지도자와 장애인·비장애인이 아이디어와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경로를 모색
  - 통치기술 워크숍: 각종 위원회나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
  - 멘토링: 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멘토로 배정해 리더십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
  - 보고 배우기(Role Shadowing):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의 전문적 활동을 2~4주간 직접 보고 배우는 현장실습 프로그램
  - 초급 리더십 프로그램, 중급 리더십 프로그램
  - 자기개발을 활용한 리더십 교육: 좋은 팀 리더가 되기 위한 리더십 자기개발 프로그램
  -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: 여성 지도자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여성 지도자간 네트워크를 구축
  - 윌리엄슨(Williamson): 리더십 빅토리아(Leadership Victoria)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으로 10개월에 걸쳐 수행
- 빅토리아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누구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최대 5개의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
- 참가자들을 리더십 경험이 없는 사람, 어느 정도 있는 사람, 많은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분해 수준별로 프로그램을 제공
- ‘장애인 리더십 프로그램’은 주정부, 리더십 빅토리아, 장애인 리더십 연구소(Disability Leadership Institute) 간의 협력 사업으로 시행

<http://www.premier.vic.gov.au/new-pathways-to-leadership-for-victorians-with-disability/>

[http://statedisabilityplan.vic.gov.au/application/files/2314/8062/9382/1610033\\_Victorian\\_state\\_disability\\_plan\\_2017-2020\\_Text\\_WEB.pdf](http://statedisabilityplan.vic.gov.au/application/files/2314/8062/9382/1610033_Victorian_state_disability_plan_2017-2020_Text_WEB.pdf)

<http://www.leadershipvictoria.org/programs/the-disability-leadership-program>

정용문 통신원, jungraphael@gmail.com

## 환경·안전

### 파리명물 '모리스기둥'에 대기정화 신기술 탑재

프랑스 파리市 / 환경·안전

- 프랑스 파리市는 해초를 이용해 오염된 대기를 정화하는 신기술을 파리시 특유의 광고기둥인 '모리스기둥'(Colonne Morris)에 탑재해 대기오염이 심한 구역에 설치하는 실험을 6개월간 진행하고, 결과에 따라 시내 550개의 모리스기둥에 확대 설치할 예정
- 배경
  - 파리시는 2015년 12월 비준한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대기정화 노력을 지속
  - 스타트업의 대기정화 신기술을 파리시 특유의 광고기둥에 접목
    - 모리스기둥은 1868년 가브리엘 모리스(Gabriel Morris)가 연극 광고를 위해 만든 기둥
      - 현재까지 파리시만의 고유한 광고시설로 활용 중이고, 550개가 시내에 설치
    - 스타트업 '쉬에즈'(Suez)와 '페르망탈그'(Fermentalg)는 해초를 활용해 오염된 대기를 정화하는 신기술을 개발
      - 모리스기둥이 대부분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해, 해당 장치를 모리스기둥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
- 주요 내용
  - 해초의 광합성을 이용한 이산화탄소(CO<sub>2</sub>) 정화 기술
    - 환기시스템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CO<sub>2</sub>를 포집해 물과 해초가 채워진 유리관 내부로 공급하면, 해초가 광합성의 원리로 CO<sub>2</sub>를 산소(O<sub>2</sub>)로 변환시키고 이를 환기시스템이 다시 밖으로 배출
  - 증식한 해초는 바이오메탄으로 변환해 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
    - 해초의 양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해 수집한 뒤 바이오메탄으로 변환해 도시 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
  - 모리스기둥 하나의 대기정화 시설이 나무 100그루에 맞먹는 CO<sub>2</sub>를 정화
    - 높이 4m의 모리스기둥 하나당 1m<sup>3</sup>의 저장고를 설치



- 대기오염이 심각한 공업지역에서 먼저 파일럿 테스트를 실행
  - 실험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오자 파리시도 시범적으로 설치
    - 스타트업 쉬에즈의 CEO 장-루이 쇼사드(Jean-Louis Chaussade)가 파리에 이 장치를 ‘모리스기둥’에 심는 아이디어를 제공했고, 파리의 환경 담당 보좌관인 셀리아 블로엘(Célia Blauel)이 추진 중
- 파리 14구의 알레시아 광장(place d’Alésia)에 시범 설치해 6개월간 실험
  - 해당 지역은 하루 7만 2천 대의 차량이 지나다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
  - 결과에 따라 시내 곳곳의 모리스기둥에 확대 설치 예정

- 의의

- 이미 설치된 구조물을 활용해 오염된 대기를 정화하므로 파리기후협약의 의의를 살리는 좋은 아이디어
- 대기정화 과정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인 바이오메탄을 획득해 난방에 활용하는 부가적 이익 창출
- 파리가 스타트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



그림. 대기정화 신기술을 탑재한 모리스기둥

[http://www.lemonde.fr/planete/article/2017/04/15/pollution-de-l-air-paris-va-tester-une-colonne-morris-depolluante\\_5111649\\_3244.html](http://www.lemonde.fr/planete/article/2017/04/15/pollution-de-l-air-paris-va-tester-une-colonne-morris-depolluante_5111649_3244.html)

<https://www.paris.fr/actualites/pollution-une-colonne-morris-pour-assainir-l-air-de-paris-5075>

배세진 통신원, prophet1013@gmail.com

## “부처 간 의견 충돌로 태풍 하비 대피령 발령 늦어져”

미국 휴스턴市 / 환경·안전

-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市는 태풍 하비(Harvey)에 의한 홍수 피해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 사이의 의견 충돌로 뒤늦게 대피령을 발령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원인을 분석
- 개요
  - 텍사스주는 침수위험 지역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릴 것을 권유했지만, 휴스턴시 소속 국토안보 및 재난관리국에서는 대피령을 발령하지 않겠다는 상반된 의견 제시
    - 시정부는 대피하는 시민이 정체된 도로 위에서 태풍을 맞는 사태를 우려
      - 평소에도 교통정체가 잦은 인구 2백만의 대도시라는 특성을 고려
  - 이미 도로가 침수되어 대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뒤늦게 대피령 발령
    - 그 결과 6천여 명의 구조 요청이 쇄도했고, 그중 1천 명 이상은 지붕, 다락방, 임시 보트 등에서 구조됨
- 피해 원인 분석
  - 도로를 따라 물이 흐르도록 설계되어 침수에 취약한 휴스턴시 도로의 구조적 문제
    - 일단 침수된 이후에는 보트 외에 이동 수단이 없어 지붕이나 다락방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
      - 그러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다락방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견과 옥상으로 피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상충해 시민 혼란이 가중
  - 지역별 강수량보다는 풍속을 고려해 대피령을 발령했지만, 이는 홍수 피해 예방에는 부적절한 기준이라는 비판
  - 해결책으로 고가도로를 설치해 피난처로 활용하는 방안과 정부 주도로 상습침수 지역 주민을 이주시키는 방안이 제시
    - 고가도로는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고, 주민 이주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

<https://www.citylab.com/transportation/2017/08/the-evacuation-that-wasnt/538026/>

<http://www.foxnews.com/us/2017/08/28/harvey-flooding-ravages-texas-as-abbott-orders-another-1000-national-guards.html>

<http://www.people-press.org/2017/05/03/public-trust-in-government-1958-2017/>

강민규 통신원, mgkang82@gmail.com

## 도시계획·주택

### 사회주택 입주자 의견 적극 수렴해 정책 수립

영국 런던市 / 도시계획·주택

- 영국 런던시장 사디크 칸(Sadiq Khan)은 지난 그렌펠타워(Grenfell Tower) 화재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회주택 입주자의 의견과 문제제기가 담당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더 분명히 전달되고 정책 수립에 이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권고
- 배경
  - 지난 2년간 사회주택 입주자의 불만사항 수천 건이 접수되었으나, 사회주택 조정 기관이 공식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사례는 고작 10건
    - 목살된 민원 중에는 그렌펠타워 화재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스프링클러 설비나 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민원도 모두 포함
  - 칸 시장은 영국 수상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사회주택 입주자의 목소리가 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
    - 특히 현재의 사회주택 관리기관과 조정기관(regulator)에 깊은 우려
      - 현재 시스템에서는 입주자의 의견이 사회주택 관련 정책과 관리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고 판단
- 정책 방향
  - 사회주택 조정기관이라면 마땅히 사회주택 세입자(social tenants), 임차인(leaseholders), 사회주택 부지 내 부동산 자유보유권자(freeholders)가 제기하는 민원에 진심으로 적극 응대해야 함
  - 사회주택 입주자의 목소리를 다음의 3단계에 따라 응대해야 한다고 주장
    - 1단계: 지주(landlord)가 세입자, 임차인 등의 민원을 합리적이고 시기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했을 때, 해당 민원을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연결
    - 2단계: 지주나 부동산 관리업체가 조치를 했어도, 다수의 사회주택 입주자가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다면 사회주택 조정 시스템이 빠르게 개입해야 함

- 3단계: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주택 관련 정책을 논의할 때 사회주택 입주자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
- 정책 가이드라인
  - 행정 절차 간소화
    - 현재는 사회주택 세입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도 고충처리위원이나 옴부즈맨을 바로 만날 수 없고, 예약을 담당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야 함
    - 이와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접 옴부즈맨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
  - 민원 조정 기준 조절
    - 현재 조정기관이 민원해결에 나서는 기준은 문제 상황이 ‘심각한 손상’(serious detriment)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
    - 그러나 그랜펠타워 화재의 원인이 된 스프링클러 문제제기 등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고, 지난 2년간 ‘심각한 손상’이 인정된 민원은 2건에 불과
    - 칸 시장은 이러한 기준을 재정립해야 하며, 사회주택 입주자의 실제적인 생활밀착형 민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
  - 사회주택 입주자 위원(Commissioner for Social Housing Residents) 선출
    - 많은 런던시민은 그랜펠타워 참사를 보며 그동안 사회주택 입주자의 민원을 무시하고 상황을 이 정도로 악화시킨 정책 수립자들에게 분노와 좌절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음
    - 이에 따라, 칸 시장은 사회주택 입주자위원을 선출해, 이들이 사회주택 조정 및 관리 기관을 감시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회주택 세입자·임차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

<https://www.london.gov.uk/city-hall-blog/tenants-must-have-voice-social-housing-decisions>

[https://www.london.gov.uk/sites/default/files/styles/gla\\_large\\_unconstrained/public/letter\\_from\\_the\\_mayor\\_to\\_prime\\_minister\\_-\\_01.09.17.png?itok=DU0WyYs4](https://www.london.gov.uk/sites/default/files/styles/gla_large_unconstrained/public/letter_from_the_mayor_to_prime_minister_-_01.09.17.png?itok=DU0WyYs4)

정기성 통신원, jkseong71147@gmail.com

##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

---

###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

- 미국 뉴욕市
  - 영국 런던市
  - 중국 상하이市
-

##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

### 뉴욕

- 부유층 32,000명 증세로 지하철·버스 인프라 개선 2017.08.08
- 뉴욕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운영지원을 위해 연소득 100만 달러(11억 3,350만 원) 이상인 상위 1% 부유층 32,000명의 세금을 올리기로 함. 부유층 증세로 지하철과 버스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절반을 지원할 계획임.  
<http://www1.nyc.gov/office-of-the-mayor/news/539-17/mayor-de-blasio-proposes-fair-fix-tax-wealthiest-new-yorkers-modernize-subways-buses-#/0>
- ‘흡연자 16만 명 줄이기’ 7개 법안 발표 2017.08.28
- 뉴욕시는 흡연하는 시민의 수를 2020년까지 16만 명 줄이기 위한 7가지 법안을 발표함. ① 담배 가격에 10% 세금 부과, ② 담배 소매 업체 수 제한, ③ 전자담배 소매 면허 수수료 부과, ④ 담배 소매 면허 수수료 인상, ⑤ 모든 주거 건축물에 흡연 규칙 수립, ⑥ 1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내 금연, ⑦ 약국에서 담배 판매 금지가 그것임.  
<http://www1.nyc.gov/office-of-the-mayor/news/565-17/mayor-de-blasio-signs-sweeping-legislation-curb-smoking-tobacco-usage#/0>

### 런던

- 지하철 내 4G 서비스 시스템 개선 2017.08.10
- 런던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까지 지하철 내의 4G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함. 또한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를 목표로 안정적인 디지털 연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함.  
<https://www.london.gov.uk/press-releases/mayoral/mayor-launches-plans-to-tackle-londons-not-spots>

### 상하이

- 야간 노상주차 가능구역 49곳 추가 허용 2017.08.30
- 상하이시는 야간 주차장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 노상주차 가능 구역 49곳을 추가 허용함. 해당 지역을 노상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

시간은 주말·공휴일 전부와 평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이며, 약 1,500대의 차량의 노상주차가 가능함.

<http://www.shanghai.gov.cn/shanghai/node27118/node27818/u22ai87300.html>

「세계 주요 도시 정책이슈와 동향」은 뉴욕, 런던, 상하이 등 세계 주요 대도시 보도자료에 발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. 서울시 정책 개발 및 이슈 발굴에 참고할 수 있도록, 정책의 선도성을 지니거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습니다.

편집담당자 :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